메트로 2013년 5월 20일 월요일 제2734호

두바퀴 국토대장정 인기

미스김도… 장팀장도… '5월 월급고개' 헉헉

"기념일 챙기랴 나들이 다녀오랴" 직장인 절반 30만~50만원 적자

직장인 송현기(41)씨에게 5월은 '악몽'의 연속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에 이어 지난해 깜빡하는 바람에 진땀을 빼야 했던 결혼기념일까지 끼어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에는 딸아이에게 독일 유명 브랜드의 인형을 사줘야 했고, 어버이날에는 양가 어른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쥐어드려야 했다. 온갖 기념일을 챙기느라 지갑이 텅텅 빈 지 오래지만 금어일까지는 앞으로도 5월을 더 버텨야 한다.

서울에서 홀로 직장에 다니는 싱글 여성 윤시윤(34)씨는 이달 초 주말을 이용해 고향집에 다녀왔다. 부모님과 어린이날을 맞은 조카들 선물에 적지 않은 돈을 지출했다. 이번달에는 주말마다 지인들의 결혼식이 줄을 이어 축의금에만 수십만원을 들여야 했다. 점심값이라도 아껴보려고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지만 가계부를 적다 보면 서글픔이 밀려온다.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5월은 '잔인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어린이날부터 부부의 날(21일)로 이어지는 기념일 릴레이에 쏟아지는 결혼식 청첩장까지 돈 들어 챙겨야 할 일이 쉼 없이 몰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는 석가탄신일 사흘 연휴까지 끼는 바람에 가족 나들이 비용 부담까지 추가로 얹어졌다.

특히 지난달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에게는 5월 나기가 '사투'에 가깝다. 직장인 중 750만 명은 지난달부터 평균 25만원의 건보료 추가분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일시에 추가분을 납입한 직장인은 이번달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 손해보험사가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53%는 이번달 추가 지출 비용으로 30만~50만원을 예상했다. 60만~90만원을 추가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도 18%나 됐다.

이들 중 50%는 '돈이 많이 들어서 5월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또 한 취업정보업체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월급날로부터 평균 16일 만에 지갑이 텅 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에 빗대 다음 월급날이 되기 전에 월급이 소진되는 '월급고개'를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 64.3%가 "그렇다"고 밝혔다. 결국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한 달의 절반가량을 신용카드 등에 의존해 생활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직장인 손지욱(40)씨는 "기념일을 챙기는 의미는 중요하겠지만 상술과 체면 때문에 지나친 면이 있다"면서 "일본처럼 어린이날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따로 있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며 씁쓸해했다.

/배동호기자 elevator@metroseoul.co.kr

숭례문 문루 상부서 바라보는 서울 휴일인 19일 국보 1호 숭례문을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이 도성길라잡이의 설명을 들으며 문루 상부를 관람하고 있다. 숭례문 문루 상부는 토요일(오전 11시, 오후 1시, 3시)과 일요일(오후 1·2·3시)에 특별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20명씩 받는다. /연합뉴스

‘한강의 기적’ 이끈 큰별 지다

남덕우 前국무총리 별세

박정희 정부 시절 재무장관 5년에 경제기획원장관을 4년여나 역임한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9시56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개발 경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그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고인과 같은 인물들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의 뜻이 모인다.

이날 89세의 일기로 영면에 든 남 전 국무총리는 1970년대 경제개발 1세대로 '한강의 기적'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개발 정책을 주도한 '서강학파'의 시조이자 대부로서 8.3 긴급조치, 수출 100억 달러 및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돌파, 부가가치세 도입 등 한국 경제에 획을 그은 큰 사건들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이며 22일 영결식이 거행된 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im@

19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남덕우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한 조문객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때문에 도장 찍는다

이혼·별거 사유 성격차이는 옛말… 경제문제·가정폭력 탓 결별 급증

우리나라 기혼 여성이 배우자와 결별하는 원인으로 성격 차이는 줄어든 반면 경제문제와 학대·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내놓은 '혼인 실태와 가족 주기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64세 가구의 기혼 여성 9500명 중 이혼이나 별거를 한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문제가 26.1%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배우자의 외도가 24.1%였으며 성격 차이는 22.2%, 학대·폭력 12.9%, 가족 부양 의무 불이행 11.1%, 가족 간 불화 2.3% 순이었다.

이는 2009년 같은 조사에서 성격 차이 28.6%, 배우자의 외도 25.2%, 경제문제 22.8%, 학대·폭력 7.4%였던 결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특히 1979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이혼·별거가 36.0%로 가장 많았지만 1980년대 결혼한 여성은 경제문제, 1990년대 결혼한 여성은 성격 차이, 2000년대 결혼한 여성은 경제문제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김유경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 불황의 장기화 등으로 갈등이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학대·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배동호기자 elevan@metroseoul.co.kr

'살인진드기' 공포에 기피제 관심 살인 진드기 의심 환자 2명이 사망하면서 야외 외출 시 진드기 기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 여성이 진드기, 모기, 쇠파리 등을 쫓는 곤충 기피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정상체중 女중고생 10명중 3~4명 "난 뚱뚱"

● 정상 체중인 여자 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3~4명은 자신을 "뚱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7만2229명 가운데 80.7%가 '정상 체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28.6%는 본인이 살찐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 중·고등학생 비율은 35.6%였다.

참치기름 탓 화재 16일째 타고있는 냉장창고

● 지난 3일 경기 안성시 코리아냉장 창고에서 난 불이 16일째 꺼지지 않고 있다. 19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불이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돼지고기와 참치 기름에 옮아붙었기 때문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이번 냉동창고 화재 때 소방관을 진입시켰다가 참사가 발생한 만큼 현장 진입을 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닷새는 더 탈 것"으로 예상했다.

美 사상최대 6600억 나홀로 독식 '로또 잭팟' 터진날

한국은 1등 30명에 당첨금 달랑 4억

로또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역대 최다인 30명이나 나왔다. 당첨금은 4억여 원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19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546회 추첨의 1등 당첨자는 모두 30명. 당첨금은 각각 4억594만원이었다.

◆ 최다 당첨자-최소 당첨금 기록에 조작론 다시 들썩

종전 최다 당첨자는 2003년 4월 21회의 23명이었다. 최소 당첨금은 2010년 3월 381회의 5억6574만원이었으며 최고 당첨금은 2003년 4월 19회의 407억2296만원이었다.

많아야 10명 안팎이던 당첨자 수가 30명까지 늘어난 것에 대해 나눔로또 측은 이번 당첨번호(8, 17, 20, 27, 37, 43)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7로 끝나는 숫자가 3개나 포함됐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당첨자 가운데 27명이 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했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부산의 한 판매점에서 10명의 1등이 나왔다"며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동일인이 같은 번호를 찍어 중복 당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날 파워볼 로또 사상 최대 복권 상금인 5억9000만달러(약 6593억원)를 단 당첨자가 나왔다. 플로리다주에서 팔린 한 장이 1등에 당첨됐다.

/한용기기자 kohe@

지난달 중국인 입국자수 사상 첫 30만명 돌파

1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중국인 방문객 수는 30만1580명을 기록,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 2월에 이어 일본인 방문객을 제치고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올해 1~4월 누적 방문객 수도 중국인은 100만 명을 돌파하며 일본인 91만 명보다 앞섰다.

뉴스 & 뉴스

토종여우 4마리 9월에 소백산에 추가 방사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토종 여우 4마리를 9월 중 소백산 국립공원에 방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한 쌍을 방사해 암컷은 죽고 수컷은 덫에 걸려 다리를 절단하는 등 첫 방사에 실패한 지 1년 만이다. 두 기관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올무 덫 등을 미리 수거하고 여우에 무선 추적장치를 달 계획이다. /안용기기자

인구고령화 영향 바나나 2년연속 매출 1위

● 바나나가 귤을 제치고 '국민 과일'의 자리에 올랐다. 롯데마트는 지난 10년간 과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바나나가 2011년부터 2년째 제일 많이 팔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까지는 감귤 매출이 가장 많았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바나나 수입 물량은 2000년 약 18만t에서 지난해 약 37만t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바나나는 고령화 사회의 지표가 되는 과일이다. 롯데마트 측은 "바나나는 과육이 연하고 소화가 잘 되는 데다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 노인인 일본에선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많은 바나나를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효순기자

수수료 인하로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3배 증가

● 중고차 사고 이력 조회 건수가 3배 넘게 늘어났다. 조회 수수료를 내린 덕분으로 풀이된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이력 정보 서비스 '카히스토리'의 수수료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80% 인하한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조회 건수가 3만1369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9275건)에 비해 3.4배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카히스토리 홈페이지(www.carhistory.or.kr) 방문자 수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20만6331명으로 전년 동기의 21만456명보다 줄었다. /김학철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박상철

리바이 스트라우스 청바지 특허를 받다

1873년 오늘 미국인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처음 발명한 청바지의 특허를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금광에서 금을 캐던 광부들의 바지가 쉽게 해진다는 데 착안한 리바이는 질긴 천막용 천으로 바지를 만들었고 광부와 카우보이들이 즐겨 입으면서 히트를 쳤다. 청바지 제조업체 리바이스(Levi's)는 청바지의 발명자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설립한 회사다.

스파이크 미사일 배치

연평·백령도 등 서북도서에…北 갱도에 숨겨놓은 해안포 정밀타격 가능

북한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이 서북도서에 실전 배치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9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 발사 차량과 미사일 수십 발씩을 최근 전력화했다"고 말했다.

사거리 20여㎞, 중량 70㎏인 스파이크 미사일은 은닉된 갱도 속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는 성능을 갖췄다. 1발당 가격은 2억~3억원이다.

북한은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서해안에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비롯해 내륙지역에 사거리 20㎞의 122㎜ 방사포 등을 밀집 배치해놓고 있다.

북한은 18~19일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발사체(유도탄)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 단거리 발사체 연이틀 발사

군의 한 관계자는 19일 "북한이 어제 3발에 이어 오늘 오후에도 동해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단거리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인 KN-02 개량형이거나 북한이 개발 중인 300㎜ 이상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단거리 유도탄 발사를 비난하며 도발행동 중단과 남북대화 수용을 북한에 촉구했다.

/한용기기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탄생

부산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부산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영구 광안동 옛 보건환경연구원 1층에 자리 잡은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앞으로 주민과 행정기관 간 협력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민·관 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2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게 된다.

만덕 교차로 교통 해소 추진

부산 북구가 상습 정체 구간인 만덕 교차로 교통체증 감소 대책에 나섰다. 북구는 만덕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19일 밝혔다.

14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뒤 이달 안으로 관련 공사를 발주해 오는 9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3억2000만원이다.

우선 만덕2터널에서 남해고속도로 방면의 4차로를 5차로로 늘려 차량 유입을 원활하게 하고 중앙분리대 회단 폭도 좁히고, 인근 주유소 앞의 부지를 도로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만덕교차로에 인접한 버스 승강장을 만덕2터널 쪽으로 50m 옮겨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연합뉴스

스포츠클라이밍 교실 운영

부산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은 6월과 8월 주말에 스포츠클라이밍 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수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해오름 인공 암벽장에서 진행되며 ▲기초 교육 및 장비 소개 ▲기본 자세 및 동작 ▲올바른 장비 사용 방법 ▲클라이밍 체험 및 추가 훈련 등 다른 교육과 체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1·2차로 나누어 6월과 8월 넷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11세)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youth.busa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4561
발행 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제임 김형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0-2100
독자센터 02)721-9862
2002년 5월 31일 창간 2002.5.31 등록번호 종로가 00017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

코이카 부산지역센터 문연다

전국 지자체 최초… 부발연에 오늘 개소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역센터가 부산에서 문을 연다.

부산시는 코이카 부산지역센터(이하 부산지역센터) 개소식이 20일 오전 10시30분 부산발전연구원(상수도사업본부 9층)에서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될 부산지역센터는 공적개발원조 분야 최고위급 회의인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2011년 12월 벡스코) 개최를 계기로 부산시와 코이카 간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코이카의 설치 협조 요청(2012년 5월)과 부산발전연구원의 설치 공간 제공 협조(2012년 8월) 및 외교통상부의 승인(2013년 4월)으로 부산지역센터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부산지역센터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위치하며 향후 ▲센터 소재 지자체의 ODA 사업 지원 협력사업 발굴 ▲ODA 교육 및 홍보 ▲지역 내 신규 협력 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 내 고메기 사업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센터와 함께 부산시의 우수 정책과 행정 경험을 활용한 ODA 사업을 적극 발굴 기획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란 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주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뜻한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난파 해적선 떴네! 16일 부산아쿠아리움 지하 3층 해저터널에서 관람객들이 난파 해적선을 배경으로 해적 복장을 한 다이버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아쿠아리움은 17~18일 오픈 더 같은 포토존 행사를 열었다. /부산아쿠아리움 제공

모래 작품전 참가하세요

웨스틴조선호텔 해운대서 내달 9일 개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다음달 9일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제26회 모래 작품전'을 개최한다.

모래 작품전은 지역사회 발전과 해운대 관광 붐을 조성하기 위해 1988년부터 호텔이 열고 있는 모래 조각 대회로 올해 주제는 '더 시네마-모래, 영화를 만나다'로 개최된다.

모래 조각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도록 가족부, 대학 및 일반부, 청소년부(중·고등부), 유소년부(유·초등부)로 구분해 진행된다.

4명이 한 팀이 돼 가로·세로 각 4m의 백사장에서 3시간 동안 주어진 주제 안에서 모래 조각을 만들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특급 호텔 숙박권, 식사권 등의 부상이 지급된다.

또 전 참가자 대상 추첨을 통해 경주·제주 등 특급호텔 숙박권,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숙박권 및 까밀리아 2인 뷔페식사권, 신세계 센텀시티 스파랜드 이용권, 아이스링크 이용권, 부산 아쿠아리움 이용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참가비는 5만원(1팀).

문의 051)749-7293

조선방직 주변 상권 되살리기

2015년까지 특화거리 조성

부산 동구 범일동 옛 조선방직(이하 조방)의 주변 상권을 되살리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와 동구는 2015년까지 시장경영진흥원과 함께 옛 조방 주변에 특화거리(조방거리·추억거리·문화거리)를 조성,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 101억원 가운데 국·시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동구는 이에 따라 조방 앞 주변 모든 전선을 지중화하고 간판을 정비하는 한편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설치, 조방거리로 만들 예정이다.

또 범5호교에서 현대백화점을 잇는 자유평화로를 왕복 5차로에서 편도 3차로로 축소해 공원과 녹지가 있는 추억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에서 범일교차로까지 왕복 7차로인 조방로를 왕복 5차로로 줄이고 LED 미디어 스트리트 등을 만들어 문화거리로 개발한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이들 특화거리에서 다양한 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캐릭터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상권을 되살린다는 전략이다.

오송 뷰티박람회 열차 운행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미(美)의 정수를 보여주는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로 가는 임시 관광열차를 오는 25일 한 차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열차는 25일 부산을 출발, 구포·밀양을 경유해 오송 박람회장으로 간다.

박람회 관람과 함께 부산·밀양지역에서 기기 항은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와 상수허브랜드를 패키지로 묶어 미적 기준에 동양의 조경미와 봄꽃 향기도 더했다.

특히 주요 역에서 현장 구매 가격보다 최대 2000원 싼 가격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

자유 여행을 원하는 고객은 주요 역에서 정기열차와 입장권이 묶인 패키지권을 구매하면 오송역 또는 조치원역에서 박람회장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51)440-2513

노숙인 등 의료서비스 강화

부산의료원은 노숙인, 무연고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료원은 노숙인 무료 진료, 지하철역 무료 진료, 신속도로 무료 진료 등 4개 사업에 올해 모두 49차례에 걸쳐 39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는 혈당·혈압·소변 검사와 투약 등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13만9000여 명에게 무료 진료 및 시술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 13만9000여 명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 및 무연고 환자가 12만20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노숙 환자 6950명, 독립유공자(유족 포함) 6100여 명, 국가유공자·참전 용사 3000여 명 등이다.

의료원은 이 밖에 지역 주민과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해 수시로 시행할 방침이다.

반밀폐형 스크린도어 확대 설치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을 위해 반밀폐형 스크린도어를 확대 설치한다.

반밀폐형 스크린도어는 천장까지 모두 덮어 승강장과 선로 구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밀폐형과 달리 승강장 위쪽이 틔어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밖으로 새 나오는 단점이 있지만 선로 추락을 예방하는 데는 밀폐형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밀폐형 스크린도어의 설치 비용은 1개 역당 16억5000만원으로 밀폐형(3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교통공사는 올해 1호선 부전·시청·부산대·장전역에, 2호선 남천·덕천·화명역에 각각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기존 설치 구간과 달리 반밀폐형을 선택했다.

이는 중앙정부에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통공사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밀폐형을 선택한 것이다.

교통공사 측은 "소방 당국에서 밀폐형을 권하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우선 반밀폐형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반밀폐형으로 설치한 후 나중에 예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공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개성만점' 6개밴드 모였네

백현진-정차식 등 이달 31일부터 부산 무대

한국 대중음악 신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두 밴드 뮤지션이 한 무대에 오른다.

무대에 오를 3쌍 총 6팀 밴드는 백현진과 정차식, 3호선 버터플라이와 이이언, 그리고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와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이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무대에 오를 이들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묘한 유사점을 갖고 있으며, 두 밴드 공연에서 끼를 겨누며 음악적 접점을 찾게 된다.

'더 밴드: 두 도시 콘서트 - 두 밴드 이야기'란 제목으로 2주간 펼치는 이번 공연은 1980~90년대 대중음악 중 한 곡을 선정해 각자의 음악 어법으로 재해석한 무대와 어쉬한 분위기를 자유롭게 유영하듯 이어지는 두 뮤지션 간의 대화로 관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LIG아트홀 부산은 '더 밴드' 공연에서 무대와 객석의 다양한 배치가 가능한 가변형 블랙박스 무대를 제대로 살려 감각적인 공간 연출을 시도키로 했다.

전석 3만원. 문의 1544-3922, 예매 1544-1555

/김수희기자 [illegible]@metrobusan.co.kr

경성대 디지털미디어학부 융합 교육 지원사업 선정

경성대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디지털미디어학부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문사회, 디자인, 기술을 융합한 글로벌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분야 교육 프로그램 공모에서 경성대를 비롯한 12개 대학의 학과가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성대 디지털미디어학부는 스마트와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과 교육 체계를 보유한 융합 학과로 인정받았다.

산정 황매산 선분홍 철쭉의 유혹 16일 경남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 정상 부근 고원에 선홍빛 철쭉이 만발해 등산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태백산맥의 마지막 준봉인 황매산은 기암절벽으로 형성돼 작은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다. 2012년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 방문 때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영진전문대 금융아카데미 과정 개설

영진전문대학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학과 신한금융투자가 산학연계로 지난 8일 개설한 금융아카데미는 국내외 경제 동향, 금융시장 및 금융 상품의 이해, 주식시장의 이해 및 주가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 재테크 및 모의투자대회, 직장 예절 및 고객관리(CS), 금융권 취업 특강 등 다양한 과목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는 이 대학 경영계열 2학년생 가운데 금융권 취업 희망자를 접수받아 신한금융투자 관계자가 직접 면접을 통해 40명을 선발했다.

아카데미 수료자에게는 영진전문대학 총장과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명의의 공동 수료증이 발급된다.

에어부산 탑승객 1000만 '눈앞'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이 출범 4년7개월만에 탑승객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에어부산은 최근까지 탑승객이 992만 명을 넘어서 조만간 100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2008년 10월 부산~서울 노선을 취항하면서 출범한 에어부산은 국내선 3개와 국제선 9개 등 총 12개 정기편 노선을 운항 중이다.

지난달에는 부산~중국 시안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서 보유 항공기도 10대에 달한다.

에어부산은 탑승객 10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홈페이지(airbusan.com)를 통해 돌파 날짜를 맞추는 고객에게 국제선 항공권과 식사권, 명화관람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참가 대상은 에어부산 홈페이지 가입 고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한방칼럼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중-44184호 (광고)

혈액순환장애는 어혈을 제거

어느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어깨 근육과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잦고 어지럼증이 있다. 쉬어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 않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어혈(혈전, 순환되지 않는 피)을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이 어혈로 인해 피로누적이나 만성두통, 목·어깨결림, 손발저림, 수족냉증, 심장질환, 근육마비,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안면피부질환 등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중년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이 노화되어 각종 노폐물이 혈관에 쌓이기 때문이다. 건강의 일적 요소인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몸 밖으로 뽑아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의학적 방법이 금진옥액 요법이다.

금진옥액요법은 혼히 죽은피를 빼낸다고 하는 사혈요법의 일종. 금진옥액 이라는 말은 사혈을 하는 부위가 혀 아래의 금진, 옥액이라고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아는 혀 아래의 정맥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사혈요법이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진옥액요법 시술에서는 탁한 피에서 마치 실타래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몸 안에 있던 섬유소들이 시술한 부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다. 대게 섬유소가 많이 나오고 피가 탁할수록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이 많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술할 때 따끔할 정도의 통증만 느낄 뿐이다. 단 혈우병 환자는 시술할 수 없다. 어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타박상, 골절 등 교통사고나 스트레스, 장시간 눕거나 앉아있어도 생긴다.

적당한 운동, 금연, 금주, 녹황색 야채나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장애 질환 예방에 좋다. 또한 달맞이한의원(www.moonhill.co.kr)의 해독요법은 금진옥액 외에도 간정화치료, 장청요법 등으로 인체 정화를 통해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

가공된 음식의 범람 및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배변습관으로 인해 대장에는 묵은 변이나 숙변이 고여 있게 되어 유해 균이 유해한 세균이 [illegible] 부패된 가스가 신체에 흡수되어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다. 묵은 변이나 숙변을 제거하여 대장을 정화해주는 청장요법은 인체의 해독에서 중요한 것이다.

한의학박사 류창구 원장

또한 간 속에 분포된 담관에는 담즙찌꺼기나 노폐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간이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를 원활히 내출 할 수 있도록 하수구를 청소하듯이 정화해주는 간정화치료를 시행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덜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 청장요법과 간정화치료는 금진옥액요법과 함께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중요한 해독요법이다. 단 대장 및 직장, 간에 질병이 있는 환자는 진료 및 상담 후 시술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윤 전 대변인 자택 앞에 한 남성이 남성용 팬티를 걸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자택 앞에 취재 장비들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언론 '뻗치기' 괴로운 윤창중 이웃들

잠적 8일째 얼굴찍기 경쟁에 생활 불편 "숨지 말고 경찰 조사 받아야" 지적도

미국에서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1일 기자회견 이후 1주일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에도 그의 행방을 쫓는 기자들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의 얼굴을 찍기 위한 언론사 간 경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변인이 잠적한 지 8일째인 19일 오전 그가 사는 김포 아파트 앞에는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 카메라 4~5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사진 기자 몇 명도 눈에 띄었다.

일부는 아파트 1층 출입문 앞에서, 나머지는 윤 전 대변인 자택 현관문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지난 11일 기자회견 이후 자택으로 들어간 윤 전 대변인이 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일명 '뻗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한 언론사 간 과잉 경쟁으로 윤 전 대변인과 그의 가족들은 사실상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의 윤 전 대변인 자택 취재가 1주일 넘게 계속되자 취재 경쟁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전 대변인의 김포 자택 앞에서 만난 주민 최모(45)씨는 "미국에서 사건이 벌어진 이후 윤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모습을 드러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을 찍기 위한 언론사 경쟁이 치열한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다른 주민 이모(42·여) 씨는 "윤 전 대변인과 같은 동네에서 산다는 게 망신스럽다"면서도 "기자들이 집 앞을 지키는 탓에 윤 전 대변인이 모습을 감춰 경찰 조사가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윤 전 대변인이 하루빨리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 주민 강모(59)씨는 "기자회견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윤씨가 빨리 모습을 드러내고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불륜관계 대가로 사준 아파트 계약이 불법 아니면 돌려줘야"

내연녀에게 사준 아파트를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되돌려받기로 했다면 매매계약이 불법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4민사단독 김기풍 판사는 A(63)씨가 내연녀인 B(48·여)씨를 상대로 "4500만원을 달라"며 낸 아파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불륜의 대가로 지급된 돈은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두 사람 간 아파트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기혼인 A씨는 1999년부터 B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B씨에게 점포 임차비, 아파트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줬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B씨와의 관계가 들키자 우선 50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 남은 돈 4500만원은 B씨 소유로 해준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서류상으로 A씨가 4500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 형태로 정리를 했다. 그러나 이 사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한 푼도 받지 못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4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탁현민 교수 폭행 40대 입건

서울 마포경찰서는 탁현민(40) 성공회대 교수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최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열린 탁 교수의 책 출간기념회에서 탁 교수와 다투다 목 부위를 한 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출간기념회 행사장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탁 교수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신체접촉 없는 음란행위도 강제추행죄?

출입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될까.

유명 연예인 매니저인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B(여)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들어가 음란 자위행위를 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A씨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B씨의 눈을 응시하며 행위를 계속했다.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변태적인 소동은 30초 만에 끝났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물리적 접촉 없이 피해자를 응시하며 음란 행위를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쳐다보기만 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협박을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힘을 가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아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0층 빌딩 통째 빌려 풀살롱 영업

서울 강남에서 10층 빌딩 전체를 빌려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속칭 '풀살롱'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게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 서울 강남구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에 '풀살롱' 영업 유흥주점 10곳과 성매매 장소 제공 모텔 4곳을 덮쳐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 84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홍모씨와 김모씨는 강남구 삼성동의 10층 빌딩을 통째로 빌려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유흥주점 2곳을 차려 놓고 술을 팔면서 남성 손님에게 1인당 20만~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에게 유흥주점에서 1차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8~10층 모텔로 옮겨 2차로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업주 김모(51)씨와 다른 김모(37)씨는 강남구 역삼동의 10층 빌딩 전체를 빌려 유흥주점 2곳으로 나눠 영업하면서 빌딩 맞은편 모텔에서 2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고 손님은 도보로, 여종업원은 차량을 타고 모텔로 이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하시모토 日서도 '왕따'

잇단 위안부 망언에 자민당·다함께당 개헌공조 포기·중단 선언

하시모토 도루(사진) 일본유신회 대표 겸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뒤 일본 정치권의 기피 대상이 됐다. 직설적인 언변으로 인기를 끌며 차기 총리감으로까지 거론됐지만 최근엔 '입'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참의원 선거(7월) 후 일본유신회와의 개헌 공조 가능성에 대해 "일본유신회는 정당으로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동안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 후에는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 대신 일본유신회·다함께당과 손을 잡고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하지만 하시모토 시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자민당은 태도를 바꿨다.

이시바 간사장은 일본유신회를 "급조된 선거용 정당"이라고 평가하고 "정당으로서 성숙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17일 몰간지 인터뷰에서 "(참의원 선거 후) 공명당과 연립 여당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일본유신회·다함께당과는 개헌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함께 연립 내각을 꾸리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함께당은 한 발 먼저 일본유신회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와타나베 요시미 다함께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양당의 정책 협의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하고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입으로 흥한 자가 입으로 망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으로 흥한 자'는 하시모토 유신회 대표를 가리킨다.

하시모토 대표는 18일 "발언이 의도되지 않은 형태로 보도된 탓에 국회의원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사과하며 파문을 축소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같은 날 한 TV 프로그램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해 애매한 표현을 담고 있는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소신'을 굽히지는 않았다.

/조선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2대3 - 교황님이 이겼네요? 18일(현지시간) 바티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가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스웨덴에 24m '터널 버스' 달린다

metro Sweden

스웨덴 남부 도시 말뫼에 24m 길이의 시내버스가 등장했다. 시내 중심을 다니는 승객의 수가 기존 버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기 때문.

이에 따라 말뫼시는 기존 65개 좌석이었던 연결식 버스에 25개의 좌석을 추가해 총 90석으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도로 건설이 완료되는 내년 6월부터 말뫼 시내를 운행하는 24m 길이 버스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llegible] 기자·정리=김[illegible] 인턴기자

"내겐 교황 같은 푸틴" 佛국민배우의 '오버'

"내게 푸틴 대통령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같은 존재다."

영화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사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고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과 비교했다.

드파르디외는 높은 세금을 피해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지난 1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그는 18일 현지 신문과 인터뷰에서 "푸틴은 러시아에 필요한 지도자이며, 그가 지난 13년간 통치하며 이룬 업적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게 푸틴은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이나 고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과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인으로 새로 태어난 드파르디외는 푸틴 대통령을 성인으로 추앙받는 요한 바오로 2세에 견주었지만 그의 비유는 앞뒤가 잘 들어맞지 않는다.

폴란드 출신으로 반공산주의자인 요한 바오로 2세는 1980년대 폴란드에서 벌어진 반소련 연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반면 푸틴은 소련연방 붕괴가 20세기 최고의 비극 중 하나라고 말했고,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해 자행된 잔혹 행위들을 규탄하지 않아 반대파의 비난을 받았다.

/조선미기자

법인카드·출근 죄는 CJ

그룹 전사적 비상경영 돌입·글로벌 침체 지속·내수부진 위기감 반영

CJ그룹이 비상경영체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계열사별로 지난 3월 말부터 '허리띠 조이기'에 나서 이달부터 전사적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계열사 대표들은 최근 회사와 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등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근 시간은 최대 1시간 빨라져 오전 8시로 앞당겼다. 공식 업무가 아닐 경우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각종 자문료와 용역 비용을 줄이는 등 추가 예산을 '제로화'하는 경비 운용 가이드도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 계열사는 영업 비용을 크게 줄여 '1+1' 행사 같은 판촉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제일제당 간장사업 정리 검토

CJ그룹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CJ제일제당은 핵심 제품 사업에 집중하면서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손을 뗀 분말카레 사업을 비롯해 간장, 고춧가루 등 수익이 좋지 않은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J그룹 계열사들의 비상경영체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다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력 회사인 CJ제일제당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이 겹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1.8% 줄었다. 자회사로 편입한 대한통운 실적까지 따지면 영업이익은 21%나 떨어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정부 규제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 CJ푸드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CJ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통일된 비상경영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사들이 조직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의 비상경영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돼왔다. 경기 불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롯데·신세계 등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권효순기자 hsson@metroseoul.co.kr

반값 수건 균일가 골라 담기 19일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열린 '수건 균일가 골라 담기'에서 모델들이 반값 수건들을 보여주고 있다. 세면 수건은 2000원, 목욕 수건은 3000원에 균일가로 구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LIG 차보험 할인받는 신한 제휴카드

LIG손해보험(회장 구자준 www.ligdirect.co.kr)이 신한카드와 함께 새로운 제휴카드를 선보였다.

LIG손해보험은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고 자동차보험료를 10%,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LIG다이렉트 신한 HI POINT 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발급 첫해에 이 카드로 'LIG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결제하면 카드 사용 실적에 관계 없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지성기자

총상금 1030만원 청심 사진공모전

7월7일까지 응모 접수

글로벌 문화 교육 기업 청심이 '제6회 청심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가족만의 특색 있는 모습을 찾아보며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가족, 7시에 뭐하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내·외국인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7월 7일까지 청심 사진공모전 홈페이지(contest.cheongshim.com)에 1인당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우리은행과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 후원하며 수상작은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엄격하게 선정된다. 총 상금은 1030만원으로 수상작은 2014년도 캘린더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 45개 도시 항공권 특가

일본항공 7월 말까지 한국출발 日경유 노선

일본항공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 45개 도시행 항공권을 7월 31일까지 특가 판매한다.

한국~일본 구간은 일본항공 운항편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태평양 횡단 구간은 일본항공 또는 아메리칸항공 코드셰어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일본항공 코드셰어편을 비롯해 아메리칸항공, 알래스카항공 코드셰어편이나 에어캐나다, 블루제트, 에어웨이즈, 웨스트 제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서부와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2단계의 운임을 설정하고 있으며, 라스베이거스와 시애틀의 경우 최저가 기준 100만2000원(이하 제세금 포함)에, 댈러스, 뉴욕, 워싱턴, 애틀랜타 등 총동부행은 120만5000원에 판매한다. 스톱오버는 왕복 1회를 포함해 총 2회를 허용한다. 문의 www.kr.jal.com, 02)757-1711 /권보람기자

여행 '모바일 예약' 대세

여행 예약 수단이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5월 현재 모바일로 여행 일정을 예약하는 고객 비중이 20%에 달하는 등 모바일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올해 연말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해 항공과 숙박 등을 예약하는 여행객 비중이 40%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바퀴 국토대장정' 뜬다

24일 '서울~부산 종단' 행사 8월엔 '백두대간 MTB 랠리'

저비용·친환경 등 자전거 여행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두 바퀴'로 즐기는 장거리 투어가 새로운 국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행사도 줄을 잇는다.

한국관광공사는 24일부터 사흘간 '2013 서울~부산 자전거 투어'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의 자전거 길이 연결된 이래 최초로 열리는 '종단 투어'로 충주 수안보와 대구 달성보를 중간 기착지로 서울~부산 간 약 500km의 길을 자전거로 달리는 일정이다. 참가자는 160명 규모로 해외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참여한다.

8월에는 바이크앤씨(BIKE&C) 주최로 '제1회 백두대간 MTB 랠리'가 열린다.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전남 구례까지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코스로 모두 1200km를 14박15일 동안 달리면 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장거리 자전거 투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적은 비용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어 새로운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롯데면세점 신나는 금·토·일 '러브세일'

롯데면세점이 매주 금~일요일마다 의류·가방·화장품 등 인기 품목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하는 테마 이벤트 '러브 세일(LOVE SALE)'을 진행한다. 쇼핑객 모두에게 최대 10%까지 추가 할인이 가능한 VIP 카드(실버)도 함께 발급한다.

본점·잠실점·코엑스점 등 서울 시내 롯데면세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위해 주말마다 의류·가방·선글라스 등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지점 내에 위치한 설화수·아모레퍼시픽·헤라·SK-II·시슬리 등 인기 코스메틱 브랜드는 20일 성년의 날을 기념해 향수·화장품을 30% 할인 판매한다. 스와로브스키·아가타·올리볼리·콜로에 등 액세서리도 4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제휴별 이벤트도 이어진다. 본점·코엑스점은 17일부터 19일까지 주류를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본점·잠실점·코엑스점은 건강식품을 20% 세일한다. /권보람기자

페스티벌도 큰손이 좌지우지

뉴스룸에서
유순호
<연예 스포츠 차장>

음악 팬들이 1년 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페스티벌의 계절이 돌아왔다.

크고 작은 페스티벌은 매년 늘어나 올해 그 수는 사상 최다에 이른다. 이미 지난 주말에만 4개 행사가 열렸고, 다음달에는 '울트라 코리아'가 개최된다. 7~8월에는 '안산밸리 록페스티벌'(7월 26~28일),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8월 2~4일),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8월 2~4일), '슈퍼 소닉'(8월 14~15일),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8월 17~18일) 등 빅 이벤트가 집중된다.

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잔칫상만 늘어나다 보니 주최사들의 밥그릇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개최 전부터 업계 종사자들 간의 불신과 비방이 난무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 4년간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을 함께 끌어왔던 CJ E&M과 지산포레스트리조트는 올해 계약이 만료되면서 각자 '안산밸리 록페스티벌'과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라이벌로 놓이셨다. 이 과정에서 CJ E&M은 지산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산은 CJ E&M이 중소 기획사의 숨통을 조른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4년 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의 공동 주최사가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을 신설할 때에도 비슷한 싸움이 벌어진 바 있다.

사을 간격으로 개최되는 '슈퍼소닉'과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의 감정도 좋지 않다. '슈퍼소닉'과 출연진 교류 등 협조 계약을 맺은 일본 '섬머소닉'의 헤드라이너 메탈리카와 뮤즈가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 출연을 결정하면서다.

섭외 싸움은 출연진 몸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시장 규모가 7~10배 큰 일본보다 1.3배가 높은 약 20억원에 해외 아티스트를 모셔오는 과다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가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관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과다한 출연료 지불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티켓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뮤지션들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정작 보고 싶은 하나의 페스티벌을 고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쟁에서 밀린 페스티벌은 퇴출되고 결국 거대 자본을 쥔 '큰손'들만 살아남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이다.

페스티벌은 단순한 음악 감상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자리다. 고유의 색깔을 잃을 때 존재의 이유는 사라진다. 글로벌 문화 강국을 지향하기에 앞서 다양성이 인정되는 건강한 내수시장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엔저' 독약이 아니라 보약으로 삼자

청론탁설
유병필
<언론인>

우리 경제는 아베노믹스 여파로 커다란 곤경에 처해 있다. 무차별식 자금 살포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저환율 정책에 고전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극도로 냉각시키고 있는 아베 총리는 중앙은행과 손잡고 올해 20조2000억 엔의 자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 중이다. 따라서 지난해 엔화는 10를 달러당 70엔 선에서 이제 30% 정도나 절하된 100엔대를 넘어섰다. 머지않아 105엔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바람에 일본 경제는 그동안 경기침체를 벗어나 주요 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우리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자로 허덕이던 파나소닉에니 샤프도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제 발언은 미미하다. 지난 11월 영국 런던 에일즈버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비공식 회의에서도 비판은이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 가장 곤욕을 먹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주 "엔저 전쟁은 한국이 최대 피해자며 한국의 국부가 일본으로 불러들어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수출 전선에 타격을 받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에 경기부양책을 촉구해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 추경예산을 한 가지만 해도 일본 경기부양자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를 놓고 국회에서 늑장을 부리며 처리해줄 정도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미처 미지못해 뒤늦게 소폭 인하했을 뿐이다.

대체로 엔화가 1% 절하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0.92%가 줄어드는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중소기업은 비상경영을 통해 현재를 이겨내고 있다. 고객 서비스 강화를 비롯해 시장 다변화, 제품 다양화, 환 보험 활용, 선물환 거래 등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전후 미국이 일본에 취한 엔고 압박 당시 일본은 감량 경영은 물론 마른 수건도 다시 한 번 짜면 물이 나온다며 비상경영을 펼쳤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으로 받아들여 우리 기업은 생산성을 보다 높이고 원가 절감과 기술 개발, 품질 개선 등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해야 한다. 바로 엔저를 독약이 아닌 보약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기업, 특히 노사가 한몸이 되어야 약효를 배가시킬 수 있다.

포토프리즘

아저씨 최이에요

지난 18일 서울광장에는 무료게 연주가가 통기타 한 대만을 들려면 제 연주를 하고 있었다. 곧 음악에 이끌린 아이가 그 연주가의 곁을 지키며 호응하고 연신 박수를 치고 있었다.

/손진형기자 son@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제언, 주장(원고지 3~4매 내외) 등을 e-메일(opinion@metro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지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풍성한 가요계를 꿈꾼다

위성은(35·직장인)

최근 가요계는 분명 이전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아이돌의 일률적인 음악이 잠악하고 있던 과거에서 벗어나 조용필·로이킴·이효리 등 신구 가수들이 개성 있고 듣기에도 좋은 다양한 음악들을 내세워 번갈아 음악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조용필은 말할 것도 없이 '가왕'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고 '슈퍼스타K 4' 우승자 로이킴과 아이돌 출신인 이효리마저 개성 있는 자작곡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 참 반가운 풍경입니다. 이처럼 달라진 풍경으로 인해 가요계가 한층 풍성해졌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요계가 풍성해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트 상위권은 이전과 다름없이 스타들의 전유물로 보이니까요. 방송을 타거나 유명한 가수가 아니면 주목받기 힘든 가요계의 현실 때문이지요.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유명하지 않아도 좋은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방송을 타지 못해 쉽게 접하기 힘들 뿐이죠. 방송은 여전히 인디 뮤지션들에겐 높은 벽입니다.

시청률을 의식해 예능 등 여러 모로 쓸모가 많은 스타를 우대해야 하는 방송사의 속사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중의 듣는 귀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요계가 진짜 풍성해질 날을 기대해봅니다.

탕평책의 비밀

인문학 산책
김인웅
<숭실회대 교수>

"조광조가 말하자 중종은 얼굴빛을 가다듬으며 들었고, 서로 진정으로 간절히 논설해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다." 중종실록의 기록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이는 조만간 파탄이 난다. 조광조의 개혁 요구가 날이 갈수록 지나치다고 여긴 중종이 점차 그를 멀리하게 되었고 이 틈새를 노려 훈구파가 반격을 취했던 것이다. 주초위왕(走肖爲王), 잘 알려진 바대로 조(趙)씨가 왕이 되려 한다는 괴소문의 근거로 내세운 문장이었다. 1519년 기묘사화의 신호탄이었다. 사림(士林)은 무오, 갑자에 이어 또다시 훈구파에게 당한다.

조선사에서 사림의 등장은 정치 개혁과 같은 관련이 있다. 간국 공훈 세력 훈구파가 기득권을 쥐고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전횡을 계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주는 재야에서 실력을 쌓아올리던 신진 사대부 세력을 중앙에 불러들였다. 폭정을 하던 연산을 몰아낸 1506년 중종반정 이후 사림파 등용이 그 보기다.

그러나 이들도 훈구파의 반격과 기회주의적인 왕의 외면으로 몰락하고 만다. 의욕만 앞세웠던 신진 사림파가 치명상을 입었던 것이다. 여러 차례 사화를 당하면서 사림은 정치더욱 키운다. 낙향과 유배가 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기르는 시간을 준 것이다. 임진년 7년 전쟁 이후 훈구파는 주도권을 잃고 사림파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사림 정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붕당정치의 뿌리가 된다. 어른비 사색 당파 싸움의 정해가 만연하게 되었던 것이다. 학문적 역량은 뛰어났으나 이들의 정치적 갈등은 중간 지대가 없었다. 붕당정치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활력은 만들어 낸 반면에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 탕평책은 이걸 해소하기 위해 택한 군주의 정치였다.

숙종 후반기부터 영조와 정조에 이르러 최고조로 달하는 탕평정치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군주가 스승의 역할도 함께 하는 군사(君師)의 역량을 지닐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조가 죽은 후 외척 세도정치로 기울었던 것은 군주의 수준이 몰락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 17세기 명말청초의 시기, '명이대방록'을 쓴 중국의 사상가 황종희는 이런 말을 남긴다. "군주가 천하의 이익은 자신에게 돌리고 해로움은 남에게 돌리면서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다. 군주는 객이고 백성이 주인이다." 군주 체제가 당연했던 시대의 말이다.

metro weekend

star bag

팬미팅에 1000여명 몰려

배우 **주지훈**이 18일 상명아트센터 계당홀에서 '2013 주지훈 팬미팅- 위드 유'를 개최하고 1000여 명의 한·중·일 팬들과 만났다.

이번 행사는 주지훈이 2011년 11월 전역 직후 열린 팬미팅 이후 1년 반 만에 팬들을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로, 16일 그의 서른한번째 생일을 기념해 열렸다. 이날 주지훈은 가수 유투의 '위드 오어 위드아웃 유', 미스터빅의 '투 비 위드 유' 등 총 13곡을 부르며 수준급 노래 실력을 자랑했다.

서지석 결혼식서 남성 청혼

가수 **아이유**가 18일 열린 배우 서지석의 결혼식에서 한 남성 팬으로부터 기습 청혼을 받았다.

이날 SNS에는 아이유가 축가를 부른 후 한 남성이 '나와 결혼해주세요'라고 외치며 습격했고, 아이유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경호원과 매니저들이 해당 남성을 제압했다는 내용의 '아이유 습격설'이 퍼졌다. 이와 관련해 아이유 측은 "한 팬이 갑자기 나타나 결혼해달라고 외친 건 맞지만 습격은 과장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평창 글램핑페스티벌 참석

미쓰에이 **수지**와 배우 김수현이 함께 캠핑을 떠났다.

이들은 18일 아웃도어 브랜드 빈폴아웃도어 주최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글램핑페스티벌에 참석해 초청된 고객들과 함께 글램핑 체험과 불꽃쇼 관람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게임을 하고, 대화도 나눴다.

딸 전 남자친구와 헤어져

할리우드 스타 **데미 무어**가 딸의 남자친구였던 19세 연하 남성과 교제 6개월 만에 결별했다.

17일 TMZ 등 미국 연예 매체에 따르면 무어는 레스토랑 사업가 해리 모든과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다. 모든은 무어의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자친구로, 무어는 그와 교제하면서 '막장 스캔들'로 비난을 받아왔다. 무어는 현재 20세 연하의 다이버 윌 하니건과 교제 중이다.

"종잣돈 500만원으로 레디고"

간 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은 열성부른 백일몽의 '오늘'이자 '동울문'이다. '피아노'의 제인 캠피온을 비롯한 숱한 세계의 거장들이 이 부문의 수상으로 처음 주목받기 시작해서다. 66회째를 맞이한 올해 한국 영화는 장편 경쟁 부문에 두 편('돈의 맛' '다른 나라에서')이 진출했던 지난해와 달리 단 한 편도 초청받지 않아 다소 자존심을 구겼지만, 단편 경쟁 부문에 '세이프' 한 편이 이름을 올려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개막 나흘째로 영화제의 열기가 절정에 이른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의 해변에서 '세이프'의 연출자인 문병곤(30) 감독을 메트로신문이 단독으로 만났다.

'세이프'로 칸 영화제 단편 진출

문병곤 감독

동문·지인 십시일반 도움받아 '한방' 폐해 내 방식으로 풀어 감독 인생에 용기 준 작품이죠

▶단 4명이 나흘만에 촬영

13분 분량의 이 영화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환전소 여직원과 도박에 중독된 사내의 짧은 만남을 통해 현대인의 우울한 자화상을 은유한다.

거대 자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느 단편 영화가 그렇듯 '세이프' 역시 우여곡절 끝에 태어났다. 문 감독은 신영균영화재단의 단편영화 지원 프로젝트에 당선되면서 받은 상금 500만원을 종잣돈 삼아 제작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여자친구와 촬영·조명감독 단 네 명이 모여 건물 지하 주차장을 빌려 나흘 만에 촬영을 마쳤다. 중앙대 영화학과 동문인 친형과 지인들의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 올 3월에야 간신히 후반 작업을 끝낼 수 있었다. "아직도 50만원이 빚으로 남아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액수일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직업 없는 제겐 매우 큰 돈입니다. (웃음) 영화제 끝나고 서울에 돌아가면 하루빨리 갚아야죠."

▶불법 게임장 환전소 배경

몇 년 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면서 제대로 된 노동 없이 거액을 벌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무서운지 간접적으로나마 실감했다. 이 같은 관심은 작품으로 이어져 '잘못된 욕망'의 집합소인 게임장 환전소를 배경 삼아 줄거리를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문 감독은 "자기만의 사업을 꿈꾸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샐러리맨 친구들을 보면서 '인생의 아이러니'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며 "이번 작품도 '한 방'에 매달리는 요즘 금융 자본주의의 막이사슬과 폐해를 잘은 모르지만 알기 쉽게 나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소규모 액션물 연출 꿈

문 감독은 칸의 러브콜로 2년 전 '불멸의 사나이'로 비평가주간에 진출했고 올해가 두 번째다. 지난해 졸업 이후 호구지책으로 알알 대기업 계열 영화 투자·배급사에서 잡무 처리용 인턴 사원으로 일했던 그에게 전업 감독으로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안겨준 계기였다.

이제 목표는 당연히 장편 상업영화 감독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누구는 칸의 후광이 있으니 데뷔는 시간문제라고 말하지만 정작 문 감독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로 업계 관계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뿐이다.

기회가 된다면 니컬러스 윈딩 레픈 감독의 '드라이브'처럼 자기 색깔이 분명한 소규모 액션물을 연출하고 싶다. 액션을 도구로 진한 여운을 선사할 수 있는 이야기에 매달리려 한다. 칸의 청명한 햇살처럼이나 반짝이는 그의 눈빛에서 목표 달성의 높은 가능성이 읽혔다.

/칸=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시청률의 여왕' 3인 돌아온다

고현정·이보영 수목극 대결 - 조윤희 주말극 노크

'시청률의 여왕'들이 안방극장을 한꺼번에 찾는다.

'선덕여왕' '대물' 등 출연한 드라마마다 히트를 친 고현정이 다음달 방영될 MBC 수목극 '여왕의 교실'에 출연한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6학년 3반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아이들을 궁지로 내모는 초등학교 선생 마여진 역을 연기한다.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작진이 공개한 캐릭터 사진에서 그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발머리를 한 채 검은 정장과 구두를 착용해 마녀·구미호·사이코패스 등 무시무시한 별명으로 불리는 마 선생으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초 KBS2 주말극 '내 딸 서영이'의 타이틀롤을 맡아 40%가 넘는 시청률을 견인했던 이보영도 돌아온다. 차기작으로 다음달 초 방영될 SBS 수목극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선정해 고현정과 '시청률의 여왕' 자리를 놓고 정면 승부를 펼친다.

현재 지상파 3사 수목극들이 10% 미만의 시청률로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들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방영된 KBS2 주말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방이숙과 14일 종영한 tvN '나인: 아홉 번의 시간 여행'의 주민영 역으로 큰 사랑을 받은 조윤희는 7월 첫 방송될 MBC 새 주말극 '스캔들'로 다시 한 번 주말극 흥행을 노린다.

전작의 캐릭터보다 더 발랄한 매력을 지닌 우아미 역을 맡아 시청자들을 사로잡는다는 각오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뮤지컬로 만나는 마이클 잭슨

'스릴러 라이브' 내달 공연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생을 히트곡으로 꾸민 콘서트 뮤지컬 '스릴러 라이브'가 국내에 상륙한다.

영국 웨스트엔드 오리지널팀이 6월 26~30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내한 공연을 한다.

'스릴러 라이브'는 마이클 잭슨을 소재로 한 최초의 공연으로 잭슨 파이브 시절부터 그가 남긴 히트곡을 5명의 마이클 잭슨과 40여 명의 크루가 완벽하게 재현한 작품이다. '아윌 비 데어(I'll be There)' '벤(Ben)' '댄저러스(Dangerous)' '빌리 진(Billie Jean)' 등 32곡의 노래와 연주를 모두 라이브로 들려준다.

특히 잭슨 파이브 시절의 어린 마이클 잭슨이 등장해 '아윌 비 데어'를 부를 때에는 잭슨을 실제로 만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색다른 감동을 전달한다.

마이클 잭슨의 오랜 동료이자 그의 자서전 '마이클 잭슨: 더 비주얼 다큐멘터리'를 집필한 에드리안 그랜트가 직접 기획한 것으로 뮤지컬 '클링투즈' '위 이스 뮤지컬'의 예술 감독으로 잘 알려진 게리 로이드가 연출과 안무를 맡았다.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던 2006년 초연돼 지금까지 전 세계 25개국에서 4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다. 2010년에는 '웨스트엔드에서 꼭 봐야 할 뮤지컬 2위'에 올라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만족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 02)701-7511 /김민준기자

SMU / YL / PL -TESOL

국제영어교사 어린이영어교사 놀이영어전문가

2013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남/여]

SMU/YL : 6.24 (월) ~ 7.1 (월)

PL : 6.3 (월) ~ 6.10 (월) | 입학설명회 : 6.1(토)

※ 문의 : 02-2077-7700

비에 젖고 보석 도난에 얼룩진 칸

▶배우 인터뷰 중 총격사건 소동도

제66회 칸 국제영화제가 악천후와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개막일이었던 15일(현지시간) 비가 내려 개막작 '위대한 개츠비' 출연진과 제작진의 레드카펫 나들이를 보기 위해 운집한 관객들과 취재진이 '물에 젖은 생쥐'가 됐고, 18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장편 경쟁 부문 진출작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의 야외 포토콜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 보석 브랜드 직원이 임시 사무실로 쓰던 호텔방에 도둑이 침입해 협찬용으로 준비한 11억원어치의 보석을 훔쳐간 데 이어, 장편 경쟁 부문 심사위원인 오스트리아 출신 배우 크리스토퍼 왈츠가 초청 앞 임시 무대에서 현지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던 중 한 사내가 허공에 총을 쏘아대 왈츠가 급히 피신하는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영화제 측은 "축제라는 게 원래 시끄러워야 하는 법"이라며 애써 태연을 가장하고 있지만,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걸그룹 멤버A 톱배우B 틈거

걸그룹 멤버 A가 남성 톱배우 B와 남몰래 인천에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연예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함께 드라마에도 출연했던 이들은 평소에도 스스럼없이 절친한 모습을 과시해 주위에서 연인 사이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그때마다 부인해왔지만 소문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몇 달 전에는 무려 열몇 살 차이가 나는 또 다른 걸그룹 멤버 C와 남성 톱배우 D가 한 특급호텔에 묵었다는 소문도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요새는 걸그룹과 톱배우의 만남이 유행인가 봅니다.

▶개그맨 인지도 높이기 몸부림

개그맨들의 뜨기 위한 몸부림이 눈물겹습니다. 정범균이 마포대교를 지나다 자살 시도를 하는 시민을 우연히 발견하고 구출해 화제가 되자 너도나도 선행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아우성인데요. 선행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부러운 마음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우리 예를 써도 방송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쉽지 않으니 정기적으로 마포대교 순찰이라도 해야겠다며 스타가 되기 위한 처절한 시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PM 컴백 앨범 한·일 동시 접수

그로운' 판매차트 1위 올라

2PM이 컴백 앨범으로 한국과 일본 차트를 동시에 점령했다.

2년 만에 발표한 3집 '그로운'은 17일 발표된 일본 타워레코드 일간 판매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18일 국내 음반판매量 집계 차트인 한터차트의 실시간 판매차트와 19일 발표된 한터 일간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앞서 온라인 음원으로 공개됐던 앨범은 아시아 6개 국 아이튠즈 실시간 앨범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2PM은 2년 만에 성공적으로 국내에 컴백한 데 이어 아시아에서도 정상의 인기를 확인했다.

2PM은 단단한 매력을 담은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와 섹시한 퍼포먼스와 패션으로 무장한 '하니뿐' 등 더블 타이틀곡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17일 밤 강남역 엠스테이지에서 미니 콘서트로 시민들과 호흡하는 등 적극적인 음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

칸 국제영화제 휩쓰는 중국·일본

지아장커 '터치 오브 신'·히로카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평점조사 상위권

지난해 한국에 쏟아졌던 칸의 뜨거운 관심이 올해는 중국과 일본을 향하고 있다. 제66회 칸 국제영화제 장편 경쟁 부문에 진출한 두 나라 작품들이 현지 평단과 영화제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막을 올린 영화제가 중반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19일까지 장편 경쟁 진출작 20편 가운데 8편이 공개됐다. 이 중 중국 지아장커 감독의 '터치 오브 신'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영화 전문지 스크린 인터내셔널 칸 특집판의 평점 조사(4점 만점)에서 각각 3점과 2.5점을 얻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제6세대 감독을 대표하는 지아장커는 1998년 부산국제영화제가 뉴커런츠상을 안겨주며 처음 발굴해 한국과 같은 인연을 자랑한다. '터치…'에선 살인과 탐욕으로 엮인 네 남녀를 통해 금전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현대 중국 사회를 비판하고 꼬집는다.

마이케 다카시 감독의 '실드 오브 스트로'와 나란히 오른 '그렇게…'는 부와 성공에 집착하던 아버지가 6년 동안 키운 아들의 비밀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미남스타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출연으로 일본에선 제작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다.

칸에 온 중국과 일본의 대규모 취재진은 자국 영화들의 선전에 잔뜩 신이 난 눈치다. 반면 두 편이 장편 경쟁에 올랐던 지난해와 달리 단 한 편도 없는 한국 취재진은 양국에 비해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 숫자가 현저히 적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칸을 찾은 부산국제영화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장편 경쟁 진출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할리우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해마다 국가 안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와 다르다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진출 여부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칸에서 한국 영화는 이미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칸=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레드카펫에 선 판빙빙 로레알파리 모델인 중화권 미녀 판빙빙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영화제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레알파리 제공

프런코 디자이너 황재근 우승

"고생 떠올라 눈물 왈칵 상금은 사무실비 쓸 것"

온스타일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올스타'에 출연한 디자이너 황재근(사진)이 최종 우승을 차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결선이 방송된 다음날인 19일 제작진을 통해 "한국과 밀라노에서의 컬렉션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승자 발표 직후 힘들었던 순간들이 스쳐가면서 눈물이 많이 났다. 모든 출연진과 제작진이 고생했는데 내가 대표로 상을 받은 거라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우승으로 상금 1억원과 이탈리아 유명 편집숍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그는 또 "서울 패션창작 스튜디오 입주 기간이 만료돼 상금은 사무실 임치 비용으로 사용할 것 같다. 그리고 소형 자동차도 구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7~18일 양일간 치러진 '헬로 보이스코리아 2' 첫 번째 생방송 무대에서는 4명이 탈락하고, 길 팀의 김한지·유다은, 강타 팀의 신유미·이예준, 신승훈 팀의 배두훈·윤성기, 백지영 팀의 이시몬·송주희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높이고!

고마워요! 갈수록 혜택을 늘려줘서

글 그림/ 김평현

김영주골프 '패션한류 갈라쇼' 지구촌 그린 향해 워킹

김영주골프가 지난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13 지구촌 문화 열림 패션한류 갈라쇼'에 참가해 다채로운 봄·여름 시즌 골프웨어를 선보였다. 국내 디자인을 세계에 전파하는 등 지구촌 문화 교류의 취지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김영주골프는 감각적이면서 실용적인 디자인들로 주목을 받았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여성암환자엔 '꿈의 병원'

이대여성암병원 개원 4년 특화진료·첨단장비 큰호응

이대여성암병원이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고객 중심 서비스로 여성암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방암·갑상선암센터와 부인종양센터 등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대여성암병원은 개원 4년 만에 성장을 거듭하며 여성암 치료 병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유방암·갑상선암센터의 유방암 수술 건수는 개원 첫해인 2009년 10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237건, 2011년 474건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다 지난해에는 534건을 기록하며 국내 5위에 올랐다. 올해 1월 전체 수술 건수는 개원 초기인 2009년 3월과 비교해 7.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입원 환자 수는 8.6배 넘게 증가했다.

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최초로 여성 [illegible] 별도의 공간에서 시행하는 산상검진센터와 여성암 환자 전용 레이디병동을 운영하는 등 여성 친화적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방사선 암 치료기 '트릴로지'와 유방 촬영기인 '디지털 3차원 맘모그라피' 등 최첨단 장비를 잇달아 도입하며 진단·치료 정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은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암 환자들의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성암 환자를 위한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시설, 삶의 질까지 생각하는 치료로 환자 만족도 제고에 끊임없이 노력해왔기 때문"이라며 "국내를 넘어 외국인 환자들까지 '여성암' 하면 우리 병원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보람기자

네파, 아웃도어 업계 첫 여자 부사장 탄생

국내 아웃도어 업계 최초의 여성 부사장이 탄생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신임 부사장으로 홍인숙(42·사진)씨를 임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홍 부사장은 이전까지 총괄상무로 있으면서 제품 기획과 디자인, 마케팅을 진두지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네파는 홍 부사장을 필두로 네파를 업계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신규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illegible]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7가지 유산균 든 '7even' 은은한 연꽃맛 출시

한국야쿠르트가 7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함유한 액상 발효유 '7even'의 두 번째 맛을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제품 '7even 로터스플라워(연꽃)'는 연꽃 추출물을 첨가해 은은하고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연꽃은 옛 궁중에서 갈증 해소와 심신 안정을 위한 차로 애용됐을 만큼 전통 웰빙 재료로 각광받아왔다. 가격은 1000원(135㎖).

주원 코뼈 다쳐…김옥빈은 발목 부상

배우 주원과 김옥빈이 각각 촬영 중 중상을 입었지만 녹화를 마치는 투혼을 발휘했다.

주원은 19일 방송된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촬영 중 코뼈를 다쳐 녹화가 한동안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한국해양대 미식축구부와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의 머리에 코를 부딪쳤다. 응급 치료를 받은 그는 다시 녹화장으로 돌아와 남은 촬영을 소화했다.

김옥빈은 14일 영화 '소수의견' 촬영 중 액션 장면을 연기하다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촬영을 모두 끝냈고 KBS2 새 수목극 '칼과 꽃' 종영 이후 수술을 받기로 했다. /유순호기자

지프 랭글러가 1m 수심의 물 웅덩이를 통과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도심 속 오프로드 짜릿

지프 어번 익스피리언스 열려
급경사·1m 물웅덩이서도 '쓩~'

덩치 큰 SUV들이 고행을 자처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프로드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미션이란 험한 1m 내외의 물 웅덩이 통과하기, 4m 높이의 30도 급경사 오르내리기, 통나무 장애물 지나가기 등이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통나무로 만든 울퉁불퉁한 코스를 지나가고 있다 /손진영기자

일상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코스의 조합이지만 자동차의 험과 성능, 안정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오프로드 주행용 SUV로는 크라이슬러 지프 브랜드의 그랜드 체로키, 랭글러가 대표적이며 벤츠의 G클래스, 영국 랜드로버 시리즈, 폭스바겐 투아렉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프가 지난 16~19일 서울 신사동에서 오프로드를 체험하는 지프 어번 익스피리언스 2013 행사를 열었다.

▲수직 통나무 장애물 ▲기동성 테스트 ▲높이 4m, 30도의 급경사인 힐 클라이밍 ▲한쪽이 측면 경사인 사이드 슬로프 ▲도하 워터 코스 등을 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무거운 차가 오르막을 오를 수 있을까', '물에 들어가면 엔진이 고장나지 않을까', '내리막에서 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설 수 있나' 와 같은 걱정은 기우였다.

다만 장마로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의 특수한 환경에서나 빛을 볼 수 있는 이런 차를 사는 게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크라이슬러 측은 "일반 도로와 오프로드를 모두 주행할 수 있는 차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차 본연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안전과 성능이라는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파사트 부러워할 디자인·파워 겸비

드림카 열전 폭스바겐 CC

폭스바겐 하면 뭐니뭐니해도 골프다. 그런데 소형차로 분류되는 까닭에 마진이 적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정성을 쏟는 모델이 중형 세단인 '파사트'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쏘나타처럼 많이 팔리는 대중적인 모델이다.

그런데 파사트를 산 고객들이 서서히 불만을 드러낸다. "디자인, 성능 등 대체로 무난할 뿐 어느 것 하나 두드러지는 게 없다."

그래서 태어난 모델이 'CC'다. 파사트의 플랫폼을 그대로 쓰지만 디자인과 동력 성능은 많이 차이 난다.

전형적인 세단 스타일인 파사트와 달리 CC는 날렵한 쿠페 디자인이다. 보통 2도어인 쿠페와 달리 이 녀석은 4도어다. 사람처럼 표현한다면 CC는 '잘생겼다'고 할 수 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독일 IF 디자인상', '호주국제디자인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괜한 게 아니다.

1968cc 커먼 레일 터보 디젤 엔진(2.0 TDI 2WD 기준)은 170마력, 최대 토크 35.7kg·m의 힘을 낸다. 같은 크기의 일반 엔진을 쓰는 파사트의 140마력, 32.6kg·m와 차이가 있다. 연비도 15.6km/ℓ로 파사트(14.6km/ℓ)보다 조금 낫다. 이 밖에 주행 모드를 컴포트, 일반, 스포츠 3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는 기능도 있다.

가격은 2.0 TSI 4450만원, 2.0 TDI 블루모션 4860만원, 2.0 TDI 블루모션 4모션 5060만원인데, 2.5 가솔린 3810만원, 2.0 TDI 4140만원인 파사트에 비해 살짝 비싸다. 700만원 정도 갭이 있지만 수려한 외모와 밟는 즉시 치고 나가는 동력 성능을 감안한다면 CC의 가격은 경쟁력이 있다.

/박성훈기자

지동원 5호골!

아우크스부르크 1부 잔류

지동원(22·아우크스부르크·사진)이 분데스리가 시즌 최종전에서 5호골을 터뜨리며 팀의 강등권 탈출에 힘을 보탰다.

지동원은 19일 열린 그로이터 퓌르트와의 2012~2013 분데스리가 34라운드 홈경기에서 팀이 2-1로 앞선 후반 30분 쐐기골을 넣었다.

지난달 27일 슈투트가르트전에 이은 3경기 만의 득점포로, 16위이던 아우크스부르크는 이날 3-1로 승리해 15위(승점 33)를 확정하며 강등권에서 탈출했다. 분데스리가는 17~18위가 자동 강등되며, 16위는 2부리그 3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정튼준기자

류제국 V '귀국 신고'

메이저리거 한국 데뷔전 승리투수 … 박찬호 이어 두번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출신의 우완 투수 류제국(30·LG)이 한국프로야구 데뷔전에서 승리를 안았다. 한국에 돌아온 역대 메이저리그 중에서 박찬호(전 한화) 이후 처음으로 마수걸이 승리를 맛봤다.

류제국은 1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 5⅓이닝 동안 홈런 2개를 포함한 안타 5개와 볼넷 2개를 줬으나 4점으로 KIA 타선을 막았다.

타선이 일찍 봇물 터져 7점을 벌어준 덕분에 7-4로 앞선 6회 승리 요건을 안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경기가 그대로 끝나면서 류제국은 한국 무대 첫 등판에서 팀의 4연패를 끊는 귀중한 투구로 승리를 거뒀다.

그는 최고시속 147㎞를 찍은 직구와 144㎞까지 나온 투심 패스트볼, 체인지업을 주로 던져 KIA 타자들의 눈을 현혹했다.

김기태 LG 감독은 승기를 잡자 정현욱(6회)-봉중근(8회) 필승 계투조를 조기 투입해 KIA의 기세를 꺾었다.

덕수고를 졸업한 류제국은 2001년 시카고 컵스와 160만 달러에 계약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이후 2010년까지 5개 팀을 거치며 1승 3패, 평균자책점 7.49를 남겼다. 한국에 돌아와 공익근무로 병역을 마친 뒤에는 지난 1월 31일 LG와 6억 5000만원(계약금 3억+연봉)에 도장을 찍고 2군에서 컨디션을 조율해 왔다.

한편 삼성은 NC를 7-4로 제압하며 휴식 중인 넥센을 제치고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삼성은 이날 경기로 주말 마산 3연전을 싹쓸이했다. 5이닝을 4점으로 봉쇄한 삼성의 배영수는 타선 지원 속에 시즌 6승(1패)째를 따내고 다승 단독 선두로 뛰쳐나갔다.

롯데는 SK를 11-5로 물리쳤다. 두산은 장단 21안타를 몰아 때려 한화에 15-8로 역전승했다.

/김승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김형성 무서운 '뒷심' 대역전극

日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정상

김형성(33)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올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형성은 19일 일본 지바현의 소부 골프장에서 열린 JGTO PGA 챔피언십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5언더파 279타를 기록한 그는 요시노리 후지모토(4언더파) 등 3명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김형성은 선두와 9타 차인 공동 17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해 버디 7개, 보기 1개를 엮어 6타를 줄이며 대역전극을 썼다. 일본 무대 진출 4년 만인 지난해 바나 H컵 KBC 오거스타 대회 우승에 이어 일본 투어 2승째를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허윤경 KLPGA투어 첫 우승

'미녀 골퍼' 허윤경(22)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일궜다. 허윤경은 19일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서코스에서 열린 2013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3라운드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천금 같은 버디를 낚아 장하나·이정은 변현민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허윤경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1억원을 가져갔다.

베컴의 눈물 잉글랜드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38·파리 생제르맹)이 18일 열린 프랑스 프로축구 1부리그 37라운드 브레스트와의 경기에 출전해 눈물을 보였다. 이날 경기는 베컴의 은퇴 무대로 그는 전반 31분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블레이즈 마투이디의 득점에 도움을 기록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베컴은 후반 36분 에세키엘 라베치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나가면서 동료와 관중들의 기립 박수가 이어지자 끝내 눈물을 흘렸다. /로이터 연합뉴스

스포츠브리핑

■ 탁구혼복 세계선수권 은메달

한국 탁구가 세계선수권 개인전에서 10년 만에 은메달을 따냈다.

혼합 복식 이상수-박영숙 조는 15일 프랑스 파리 베르시 경기장에서 끝난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북한의 김혁봉-김정 조에 2-4(6-11, 8-11, 3-11, 11-6, 11-8, 7-11)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선수권 개인전에서 한국이 은메달을 딴 것은 2003년 프랑스 세계선수권 주세혁 이후 처음이다.

프로야구 전적 19일

■잠실

KIA	020	002	000	4
LG	101	050	00X	7

■문학

롯데	000	002	063	11
SK	100	001	003	5

■대전

두산	013	400	142	15
한화	412	000	000	8

■마산

삼성	023	100	000	7
NC	201	000	000	4

프로축구 전적 19일

인천	1	0	직원
대구	1	1	대전
성남	2	0	경남

최운정 LPGA투어 첫 우승 보인다

모빌베이 클래식 3R 17언더파 … 2위권에 1타 앞선 선두

최운정(2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모빌베이 클래식 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며 생애 첫 우승컵을 향해 순항했다.

최운정은 19일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RTJ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셋째 날 버디 7개, 보기 1개를 엮어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중간합계 17언더파 199타가 된 그는 이날 11타를 줄인 안나 노르드크비스트, 제시카 코르다에 1타 차로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3라운드까지 54개 홀을 돌면서 보기를 2개로 막은 최운정은 이날 100%의 페어웨이 적중률, 94%의 그린 적중률을 기록하는 등 절정의 샷감각을 자랑했다. 4~6번홀 연속으로 버디를 잡았고, 9번홀에서 보기를 하나 낸 뒤 11~13번홀에서 다시 3연속 버디를 기록했다.

최운정은 지난해 6월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것이 개인 최고 성적이다. 올해는 3월 HSBC 위민스 챔피언스 공동 8위가 유일한 톱10 기록이다.

최운정 외에 한국 선수로는 1라운드 공동 선두였던 지은희가 12언더파로 공동 8위를 달리고 있고, 신지애·이미나·박희영·서희경 등이 10언더파로 공동 14위에 자리했다. /김민준기자

첼시 "토레스 헐값에 팔아요"

이적료 340억원 밑진 510억원에 매각 계획

페르난도 토레스(29·첼시)가 '헐값'으로 올 여름 이적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영국 일간지 더 선은 19일 "첼시가 수년간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친 토레스를 3000만 파운드(약 510억원)에 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토레스는 2011년 이적료 5000만 파운드(약 850억원)에 첼시로 이적했다. 이적 이후 한동안 부진을 겪었지만 올시즌에는 22골을 넣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첼시는 토레스가 정규리그에서는 7골에 그친 점을 들어 2000만 파운드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올 여름 그를 이적시킬 계획이다.

토레스는 첼시에서 130경기에 출장해 34골을 넣는 데 그쳤다. 이적료 5000만 파운드에 급료로 받은 2200만 파운드(약 370억원)를 더하면 한 골당 200만 파운드(약 34억원)짜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더 선은 이어 "첼시 차기 사령탑인 조제 무리뉴 감독은 새로운 공격진을 원하며 7000만 파운드(약 780억원)를 들여 이탈리아 나폴리의 에딘손 카바니와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안드레 쉬를레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훈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26 What time are you going to get up tomorrow?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기

간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Why don't we have dinner together?
B Sure. Sounds great. When will you be free?
A 나는 5시 30분에 일을 끝내고 집에 6시까지는 도착할 거야.
B Cool. I can meet you at your house at 6:30.

정답 I'll finish working at 5:30 and get home by 6 o'clock.

생생영어팁

▶ maybe VS. probably VS. most likely
어쩌면 vs. 아마도 vs. 거의 확실히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말하거나 추측할 때 maybe, probably 같은 부사를 잘 활용하면 의미 전달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단정하게 확정하여 말할 수 없을 때 이러한 부사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maybe가 약 반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probably는 약 70%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most likely는 그보다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ex Maybe John will come later.
어쩌면 존은 나중에 올지도 몰라요.

Probably John will come later.
아마 존은 나중에 올 거예요.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2

Business English 데미덱 이메일사전

누군가의 메일에 답하는 표현
Expressions for replying to someone's email

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email.

1월 7일에 보내신 메일에 답신 드립니다.
I'm writing in response to your email from January 7th.
I'm writing in reference to your email from January 7th.

소식 들으니 반갑네요.
It's good to hear from you.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I'm writing you back about your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다시 연락 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Sorry it took me so long to get back to you.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For the most current timetables, please contact the transit authority ________.
(A) directly (B) direction
(C) directs (D) directed

02 The Silvau Division is now ________ a full line of steel products at a new modern facility just outside the city.
(A) manufacturer (B) being manufactured
(C) manufactured (D) manufacturing

01. 가장 최근의 시간표를 원하시면 교통 당국으로 직접 연락하세요.
해설 완전한 문장 뒤에서 동사 contact를 수식하는 자리이므로 부사인 (A) directly를 쓴다.
어휘 transit authority 교통 당국 directly 곧, 직접 direct 用 ~으로 향하다, 총괄하다 형 직접적인, 직행의
정답 (A) directly

02. 현재 실바우 디비전은 시 바로 외곽에 있는 새로운 현대식 시설에서 모든 종류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설 be동사 is 뒤의 빈칸 다음에 목적어 a full line of steel products가 있으므로 능동태 구문을 완성하는 (D) manufacturing을 쓴다.
어휘 facility 명 시설, 설비 manufacture 동 생산하다
정답 (D) manufacturing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하기
인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 시장/상점/식당
pay at the counter 계산대에서 지불하다
look around 주변을 둘러 보다
serve food to the customer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다
toast with wine 와인으로 건배하다
hold a drink 음료를 들다

• 거리/공원/역
walk along the path 길을 따라 걷다
stand in a group 무리 지어 서다
perform on the stage 무대에서 공연하다
walk in the crosswalk 횡단보도를 건너다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다

• 물가/해변
swim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하다
play in the water 물에서 놀다
ride a boat
suntan on the beach 해변에서 일광욕하다
wear a swimsuit 수영복을 입다

손에 손잡고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